

## 법 어

이곳 두륜산에 춘색이 가득합니다. 서산대사께서는 ‘꽃향기는 마을에 가득하고 봄 산에는 구름이 걸쳐 있다’고 봄을 노래하셨습니다. 만물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이 봄날, 탄신 495주년을 기념하는 ‘호국대성사(護國大聖師) 서산대제(西山大祭)’의 자리에서 우리는 생명과 그 가치를 마음 깊이 돌아보고 있습니다.

청허당 서산대사께서는 임진왜란이라는 전란 속에서 의승군을 이끌며 조국과 백성을 구하신 호국불교의 화신이십니다. 그것이 불살생이라는 불제자의 가장 큰 계를 파하는 것이기에 어찌 고뇌가 없었겠습니까? 그렇지만 대사께서는 격문(檄文)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

‘백성들이 왜군의 창칼에 죽어 그 피가 강토를 적시고, 조국이 사라지고 백성이 괴로워할진대, 그대들이 살아있는 것이 곧 조국과 백성에 대한 배신이야 아닌가?’

대사께서는 민족의 치욕을 한탄하며 무고한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곧 불제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자후를 내리신 것입니다. 이 말씀은 시대와 공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. 만약 대사께서 오늘의 모습을 보셨다면 어떤 사자후를 내리셨을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.

나아가 이 순간에도 어떤 모습으로 생명 가치를 지키야 하며, 국가와 국민의 평온을 위해 어떻게 정진해야 하는지를 뚜렷하게 일러주고 계십니다. 이는 곧 시대적 과제이기에 그 일에 매진하는 것이 청허당의 가르침을 잇는 일이자, 수많은 의승군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계승하는 것입니다.

오늘까지 서산대사의 가르침을 이어오고 있는 대흥사는 서산대사의 의발

을 전수한 곳이자, 종통(宗統)이 돌아갈 곳이라고 하신 이 땅의 종찰이기도 합니다. 스님의 유훈에 따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종사를 배출하고, 분단의 이 시대에도 서산대사의 남북 합동 제향을 추진하며 생명존중과 호국이라는 수승한 유산을 기리고 있습니다.

또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잊은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국제사회에서 회피(回避)를 일삼는 시기에, 호국의 정신을 새롭게 새길 수 있는 다짐 또한 미래를 내다본 대사님의 혜안 덕분일 것입니다.

이러한 역사의 진실로 오늘 제향은 단순히 대흥사 차원의 대제가 아니라 국가제향으로 승격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. 그동안 회주이신 보선스님과 주지 범각스님께서 서산대제의 국가제향 복원사업과 의승군의 날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. 힘을 모아주신 대흥사 사부대중은 물론 해남군과 전라남도의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종단이 힘을 더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기에, 정부의 협조를 얻어 마침내 뜻 깊은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모두 함께 바라겠습니다.

오늘 청허당 서산대사님의 495주년 탄신 대제를 맞아 스님께서 지키고자 하셨던 그 소중한 생명가치와 우리민족의 올바른 역사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.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

불기2559년 4월 24일  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